

사회

김수환 추기경 선종 1년 ... 장기기증 都·農 온도차

광주 두 배 급증... 전남은 줄어

전남, 보수적 장례문화 탓 ... 사망 후 기증 안되는 경우 많아 문제

마지막 순간까지 각막기증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해 2월 16일 선종한 후 1년 사이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추기경의 선종 후 1년이 지나는데 18만1천12건으로 선종 전 7만9천337건보다 12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1천577건에서 2천269건으로 114% 늘었으나 전남은 2천351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0% 정도 줄었다.

실제 전국의 평균 화장률은 61.81%지만 광주는 53.1%, 전남은 39.41%로 각각 대도시와 광역도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전통적인 장례문화를 고수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전개해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는 장기기증 서약자에 대한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서약자 사망후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수기도 4억원 현금 범원 "돌려주라" 판결

척수장애에 걸린 딸을 안수기도로 낫게 해주겠다고 부모에게 현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종교인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게 됐다.



소원성취 연날리기 16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소원성취 연날리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형형색색의 연을 날리며 자신의 한 해 소원을 빌었다.

대법관에 "나주시장 엄벌" 명의 도용 청원서

경찰, 수사 나서

신정호 나주시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가 명의가 도용된 채 대법관 등에게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모(42)씨가 "내 이름을 도용한 청원서가 대법관 자택 등으로 발송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신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 지역 신문 스크랩 등을 15장 분량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시장과 정치적 노선이 다른 측에서 청원서를 보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 철거 후 교통사고 너무 난다"

광주 장등동 용호마을 주민들 재설치 요구

경찰이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교통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도로에 설치된 신호·과속위반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재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망했지만 설치 이후에는 사고발생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 철거 직후 잦았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재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농협조합장 선거 금품 수사

광주남부경찰은 광주 노농조합장 A씨가 최근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백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잡고, 16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만취 30대 차 30m 굴러가도 '쿨쿨'

광주 월산동 교차로서

문 잡겨 119까지 출동

만취한 30대가 신호대기중 차량이 맞은편 차로로 굴러가는 줄도 모르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운전자 조모씨·55)의 뒷부분을 스쳤다. 운씨의 차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도쪽으로 흘러 총 30여m 구르다가 결국 보도턱에 걸려 멈췄다.

간호사, 목욕탕에 빠진 여아 구해

○--보성군 보건소 간호사인 장현아(여·34)씨가 목욕탕 물속에 빠져 정신을 잃은 세살배기 여자아이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이 칭찬.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보성의 한 목욕탕에서 여자아이가 실수로 탕속에 빠져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장씨가 발견해 주위 손님들에게 119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한 뒤 5분여에 걸쳐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것.

승합차 30m 추락·전복

장성서 40대 부부 중상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용산마을 앞 도로에서 최모(49)씨가 몰던 '87러94××호'이 스타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

은 뒤 30m 아래 비탈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 최씨와 함께 타고 있던 최씨의 아내 김모(여·45)씨가 크게 다쳤다.

○--당초 신봉 공개를 극구 사양했던 장씨는 자신의 선형이 보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지자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

Large advertisement for 'Seoul High School Exam Institute' (서울고시학원) featuring statistics on exam success r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